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눈을 들어 산을 보라

### (시편 121:1-8)

## Lift up your eyes to the hills

### (Psalm 121:1-8)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121편을 읽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Whenever God's people are in the midst of crisis, they can read Psalm 121 and be comforted by it.

### 1. 순례자의 신앙

본시는 순례자의 시로서 순례자들이 연중 축제일에 유다의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 두 번째입니다. 시편 121편을 시공을 초월하여 순례자들로 하여금 강한 제자 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의 첫 줄에서 제자들은 불신 세계의 상징인 메섹과 게달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표시로 하늘을 향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인생의 길이 위험하고 험난할 지라도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마음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 1. Pilgrim's faith

Psalm 121 is the second psalm of the songs of ascent, which the pilgrims sung as they ascended towards Jerusalem on the Jude heights during the annual fete day. This psalm transcends time and space, giving all pilgrims a song to sing and providing them strength as disciples. In the first verse, the disciples start from Meshech and Kedar, symbols of an unfaithful world, and keep their eyes on heaven, which is an expression of believing God. Although the path of life is dangerous and difficult, the Lord

promises not to let our foot slip. He who watches over our feet will also watch over our thoughts.

### 2. 하늘과 땅을 지으신이

순례자가 산을 본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시인이 예배하는 하나님과 도움을 요청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 2.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The statement that the pilgrim sees the hill means that he sees the God who will help him. This God, who receives the psalmist's worship and helps him in his request, is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Verse 2 is repeated continually throughout all the songs of ascents.

이 시에는 산 너머 우주, 우주 넘어 창조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도움이고 원리이시며, 그 분은 인격자 되시고 지혜와 그 넓이와 깊이를 쟀 수 없는 분이십니다.

This psalm shows us that the Maker's thoughts extend from beyond the universe – the universe that is beyond the hills. God is a living and true Helper. He is a Man of character, such that we cannot survey His wisdom, width, and depth. We must lift up our eyes to the hills and see God's purpose, character, and promise. We must never reckon the consistency, providence, prearrangement, and faithfulness, which rightfully belong to God, to men.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속성, 전가되지 않는 약속, 만물 안에 있는 질서와 섭리와 예정, 하나님의 신실성은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산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 3.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 ① 방심하지 않으시는 파수꾼이시며,
  - ②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 ③ 항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 3. The God, who watches over us

- The God, who watches over us is:
- (1) our attentive guard
  - (2) our shade at our right hand
  - (3) always our protector.

### 4. 고난이 엄습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롬 8:35에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상아탑에서 쓴 것도, 즉흥적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고난들이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 4. When suffering comes over us

In Romans 8:35, the apostle Paul says that the dangers against us are trouble, hardship, prosecution, famine, nakedness, danger, and sword.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God. Paul didn't write this in an ivory tower nor extempore. He himself experienced many troubles. However, he realized that such suffering could never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When we are brought down by things such as troubles and hardship, we know that God will keep us day and night, and lead us on to His glorious throne.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넘어질 때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My beloved Christians!

Mature Christians do not close their eyes in the face of suffering and fear. Their lives are guided by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look up and move forward toward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성숙한 신자는 고난이나 두려움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9 사명자 대회 - 태신자 작성

## 모든 성도 참여 / 헌금함이나 사무국으로 제출

2009년 사명자대회가 중반전에 들어서 우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품고 기도해 온 태신자를 작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지난 주일 주보에 삽지로 '태신자 카드'를 배부하였다. 태신자를 작성한 이들은 어머니가 태아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정성을 다하여 출산하는 것처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사랑과 기도와 권면으로 양육하기 바란다. 작성한 성도들

은 태신자 카드를 헌금함이나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교회는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매주 전도편지를 발송하여 성도들이 작성한 태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지원하게 된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교육1국 유년부, 초등부 새친구 초청

유년부: 11월1일(주) 오전9시-12시 본당, 701호

초등부: 학년별 태신자 초청-11월 8일(4학년), 15일(5학년), 22일(6학년)

교육1국 유년부(부장 오치열 집사)와 초등부(부장 최희열 집사)는 2009년 사명자대회를 맞아 새친구 초청에 나선다. 유년부는 '예수님의 초청'을 주제로 오늘-11월 1(주일)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우리교회 본당과 유년부실(701호)에서 가족 예배에 함께 참여한 후, 2부 순서로 유년부 친구들이 새친구를 위해 준비한 새친구 환영 발표회(1반 - 칭찬해주기(새친구 환영사), 2반-찬양 율동, 3반 - 릴레이 성경동화(천지 창조), 4반-요절 암송(다섯 절), 5반-복음제시 스킷드라마, 6반-합주, 7반 - 난타, 8반-영어 성



경 암송 (시23편))를 갖는다. 그 후 목사님의 기도와 새친구 환영을 하고 잘한 반에 칭찬 스티커 붙이기를 한 후 3부 순서 파티시간으로 이어진다.

초등부는 11월 8일(4학년),

11월 15일(5학년), 11월 22일(6학년) 세 주일에 걸쳐 각 학년별로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기와 잃은 양 찾기 운동을 벌이며 한티공원에서 1부 예배 후에 학년별로 친교모임을 통한 총동원 주일 행사를 갖는다. 초등부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들을 교회학교로 안내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 Sola Scriptura

지난 10월 24일, 제 54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논문 발표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칼빈 탄생 5백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형식으로 열린 이번 논문 발표회는 '21세기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신학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터와 칼빈 등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교회와 세상이 모든 권위와 모든 표준을 삼아야 한다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다. 이 슬로건은 오늘날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직 말씀이란 인간적인 어떤 것에 신뢰를 두지 않고

한국복음주의신학회는 1981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당시 해외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젊은 신학자인 이종윤, 한철하, 손봉호, 오병세, 김명혁, 이형기 교수 등이 한국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나아갈 것에 의기투합하여 손봉호, 김명혁, 이종윤 목사가 초안한 회칙을 채택함으로써 발족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신학 노선을 추구하는 한국의 24개 신학대학 및 기독교종합대학교와 한국신학을 대표하는 400여명의 신학교수들로 구성된 학회로 발전하였다.

이날 개회예배 설교를 하신 이종윤 목사님은 "16C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는 가장 종교적인 시대였지만 교회는 가장 부패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되던 시대에 루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의 영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충분성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시며 이어 환영사에서 "세계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날이 멀지 않았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책임있게 연구하여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세계교회를 인도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셨다.

이날 논문 발표는 '칼빈의 개혁사상과 교회' (김재성 목사),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적 대화' (한영태 목사) 등 두 개의 주제 발제가 있는 후 총 9개 분과가 칼빈과 웨슬리의 개혁 사상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허숙 권사(편집부)

## 2010년 교회 봉사지원 오늘마감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0년 교회봉사 신청을 오늘 마감한다. 내년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2010년 교회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교회는 성도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각 부서 운영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원서 작성요령은 먼저 지원서 상단의 본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특히 동명이인 구별을 위해 교적번호나 본인 이름 뒤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 예: 이아무개1 김아무개2 등)

두 번째, 현재 본인이 봉사하고 있는 부서와 봉사연한을 기재한다. 이번에 처음 봉사신청을 하는 성도들은 2010년도 처음 봉사 신청자란에 ☆(별표)한다. 세 번째, 내년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서 중 1지망에 O표 2 지망에 △표를 한 후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 제2권사회 주관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 여성정장루치아노 최와공동으로 9일(월)-12일(목)

제2권사회(회장 이영자1 권사)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한 여성정장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불우이웃 돕기(발달장애인) 자선 바자를 갖는다.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4일간 실시되며 백화점 상품권 기간 행사 5% 할인에 우리교회 성도들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

### 공 고

서울교회 20년사 편찬위원회는 <서울교회20년사>집필에 참고할 교회 내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모든 부서의 서기, 또는 기록물을 담당하는 직분자는 현재 보관중인 2008년 이전의 기록물(각종 회의록,출석부,보고서, 기타 인쇄물 등을) 11월 30일까지 20년사 편찬위나 순례자실, 또는 사무국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담당: 유태서, 김민철 집사). 아울러, 지난 2001년에 발간된 <서울교회 10년사>의 내용 가운데 오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 화요 정오 음악회



11월 3일(화) 정오 - 김현정 오르간 독주회(연세대, 침신대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B.M.) 및 동대학원 (M.M.) 졸업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CNSMD de Lyon) 수페리어과정 졸업 (DNES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버토리 교환학생으로 수학  
현재, 연세대, 침신대, 백석예술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 뿌리 깊은 신학,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갖춘 설교

월간 목회는 2009년 9월호에 한국교회 설교자 연구 시리즈로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 문성모 목사가 탐구한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설교 세계를 수록하였으며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문성모 목사(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서울교회만의 자존심, 경건

건물이고 예배고 음악이 모두 경박해지고 현대화되는 요즘의 풍조 속에서 고전적이고 경건한 예배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강단은 철저한 성경 중심의 설교만이 있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성경이야기 밖에 없다. 그의 설교에는 그 흔한 예화도 거의 없다. 또한 유행어나 유머나 만담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끝나는 그의 설교는 서울교회만의 자존심이다.

## 신학이 있는 목회와 설교

이종윤 목사는 목회자이기 전에 신학자이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보수적인 신앙의 뿌리에 단단한 개혁신학의 즐거움을 세우고 이제 목회현장에서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그의 신학자로서의 이력은 대단히 화려하다. 아세아연합신학교, 미국 플러신학교, 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교 등에서 가르쳤으며 신학자로서 목회에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며 학자이면서 뛰어난 설교로 감동을 주는 목회자이다.... 이종윤 목사는 신학적 이상을 목회현장에서 실현하려 하였다. 그는 목회 없는 신학을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종윤 목사는 1991년에 개척한 서울교회를 담임하면서 불과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탁월한 목회자이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 서든지 신학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감당했다.

이종윤 목사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이며 한국 신학계는 그의 존재만으로 세계 신학계에서 당당할 수 있다. 그는 그간 국내외적으로 세계신약학회 회원,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학위원장, 아세아신학연맹 이사 및 신학교 인준위원, 세계로잔위원회 실행위원, 세계복음주의협의회, 한국교회갱신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로잔위원회 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번역 특별연구위원회 위원장 등 역동적인 활동을 하였다.

서울교회에는 여러 가지 연중행사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는 교회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종윤 목사가 가장 역점을 두는 행사는 KIMCHI(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mational) 세미나와 1년에 두 차례씩 전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이다. 이 모든 일들은 신학적 기반이 든든한 목회자 이종윤 목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이종윤 위임목사

## 성경적인, 너무도 성경적인

한국교회는 신학자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기대하지 않는다. 학문과 실천을 겸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가 목회 현장에 뛰어 들어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대형 교회를 이룬 역사는 이종윤 목사가 유일무이하다... 그는 보수적인 신앙 위에 성경을 해석하고, 동시에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섬기는 설교다. 그는 설교에서 언어 선택이나 예화를 잘못 사용하여 청중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으며 설교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섬기는 설교다. 그는 설교에서 언어 선택이나 예화를 잘못 사용하여 청중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으며 설교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다**

**이종윤 목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충실히 받들어 설교한다. 그의 이와 같은 단단한 개혁신학은 그의 설교를 안전 보장한다**

## 경건의 능력 위에 경건의 모양을

서울교회는 이종윤 목사라는 설교자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 서울교회 예배는 조용하다. 서울교회는 경건의 능력만 아니라 모양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종윤 목사의 경건의 특징은 조용한 정적인 면과 성직자로서의 신비감이 있다. 그는 경건의 능력 위에 경건의 모양을 갖춘 설교자로 자신을 가꾸려고 한다.

서울교회는 아직 회의나 행정에서 다툼이나 싸움이나 큰소리가 난적이 없는 조용하고 경건하고 평화로운 교회이며 설교자에 대한 교인들의 사랑과 신뢰가 절대적인 교회이다.

이종윤 목사, 그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두루 갖춘 그래서 한국 목회현장을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한국교회의 보배이다.



이영자 권사(제2권사회 회장)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 속에서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큰 아픔을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  
크고 비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왜"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의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기에  
오늘도 시명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상처를 꿰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시련을 감사의 노래로,  
변하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다.

이앤

특별찬양

# 핸드벨(Handbell)의 유태

오윤걸 집사(그레이스 핸드벨 단원)

교회의 종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며 예배자를 부르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예배에 종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후 4세기경 부터였습니다. 핸드벨(Handbell)은 중세 시대 때 교회 종탑에 매달린 여러 개의 종(Towerbell)들을 연결된 줄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잡아당겨 가며 연주하던(Change Ringing) 연주자(Change Ringer)들이 연습을 보다 손쉽게 하기위해 고안해낸 악기입니다. 한 개의 종을 가지고



Change Ringing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지만 하던 종 연주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음역과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종들을 매달아 놓고 연주하는 방법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청아하고 맑은 음을 내며 독특하고 호소력 있는 소리로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음악"이란 평을 받고 있는 핸드벨은 교회 음악 연습을 위해 만들어진, 교회 음악만을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듯이,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열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2부 예배의 헌금 시간에 아름답고 찬란한 소리로 찬양 드리고 있는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의 연주로 들려진다. 음 하나 하나를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나누어 소리 내고 이를 다시 집합시켜 음악을 만드는 핸드벨 콰이어는 기술과 협동심이 그 어느 분야 보다 필요한 연주 장르인데 우리교회의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가지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Alleluia (Jemy Sinclair 곡)' 외에 3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 송재월 선생, 오르간 김윤지 선생 그리고 타악기 김성태 학생이 수고한다.

정만 있으면 누구나 연주가 가능한 악기가 핸드벨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야 하듯이 단원 한사람, 한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핸드벨입니다. 그리고 핸드벨은, 언제 무엇보다 성실함이 요구되는 악기입니다.

서울교회는 현재 5옥타브 61개의 핸드벨과 부드럽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5옥타브 61개의 차임벨로 매주일 2부예배때 예배의 시작과 헌금송 연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 대상

##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손영희 집사(8교구)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영적인 부분의 회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목표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암독이고, 두 번째는 성경 암송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상반기에 이루었는데, 성경암송이란 목표는 부담이 되어 거대한 산같이 느껴졌고, 여러 핑계들이 마음속 여기저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7월 말경 아들 예준이가 수족구병이라는 전염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은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이 잘 돼서 다나올 때까지 외출을 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루는 아픈 아이를 재워 놓고 기도하며 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성경암송을 시작해야겠다는 착한 마음이 생겼고 저는 이 마음이 없어질까 두려워 즉시 로마서를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저는 로마서 1장과 2장을 암송 하였고 이렇게 두 장을 외우고 나니 감사하게도 제 마음 속에 끝까지 외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틀리지 않고 잘 외워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제게 사

도 바울선생님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닮게 하시며, 풍성한 말씀의 은혜에 잠기고 싶은 욕심까지 주셨습니다.

아이가 잘 때마다 외우는 가운데 사실 제 기억력의 한계에 약간 상심한 적도 있지만 처음 느껴본 꿀맛과 같은 말씀 한줄 한줄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도 맛보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큰 믿음에 다시 도전도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알찬 여쁨과 가을을 보내고, 암송대회를 통해 상이라는 열매까지 맺으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암송하는 동안 피곤한 가운데 모의심사위원이 되어서 열심히 자문해주고 기도해준 남편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통해 엄마를 말씀암송의 은혜에 빠진 우리 예준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금년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은혜로운 로마서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월 2일(월) 한국기독교 학술원 37회 공개강좌를 인도한다. 3일(화) 서울 강남노회 45회 정기노회, 5일(목)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사회에 참여하며, 6일(금) 북한 구원운동 공동회장단 모임을 소집하고, 총회 양화진 문제 대책위에 참여한다.

■ 연주회: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대전 핸드벨 30주년 기념연주회 출연 11.7(토) 오후 7시 대전 평생청소년 문화센터 대강당

■ 특려: 주민호 성도 오재영 성도 가정(6교구, 오유식 집사 이봉규 권사 딸 가정)

■ 이사: 한상준 집사, 임명숙 집사(11교구) 고양시 고읍동 현대I.Park 101-701 031)844-4556

■ 주간식당동사: 이석남선교회(11.1) 도르기전도회(11.8)

■ 금주의 식사: 선주성 장로 박우항 권사 가정(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청평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3. 2009 사명자대회 통해 받은 사명을 확인토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외시는 길

